

일 지역 여성 흡연자의 흡연태도, 흡연 신념과 니코틴 의존도

최영실*

송곡대학교 간호학과

Attitude to Smoking, Beliefs about Smoking, and Nicotine Dependence in Women Smokers

Choi, Young-Sil*

Department of Nursing, Songgok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attitudes to smoking, beliefs about smoking and factors influencing nicotine dependence in woman smokers. **Methods:** Data was collected from 131 women smokers, who visited a public health center between January and July, 2012.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18.0 program. **Results:** Mean score for attitude to smoking was 23.7 ± 3.2 , beliefs about smoking, 18.6 ± 2.9 , and nicotine dependence, 4.3 ± 2.1 . Attitude to smoking of the woman smoker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marital status, beliefs about smoking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marital status and being employed. Nicotine depende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frequency of alcohol consumption, stress, number of cigarettes smoked.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attitude to smoking and beliefs about smoking. Age when starting to smoke, number of cigarettes, and length of time one has smoked accounted for 31.0% of nicotine dependence.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increasing knowledge and improving attitudes toward smoking as well as training on stress management and exercise are needed. Also, a distinct mediation should be developed for women smokers. Especially, in-depth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psycho-social behavior-related variables for the health promotion of young women smokers.

Key words : Women, Smoking, Nicotine Dependenc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1년도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30.2%에서 2012년 25.0%로 감

소하였고, 반대로 여성은 5.3%에서 7.4%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4). 그러나 이는 대략적인 수치로 실제로는 여성의 흡연률이 이러한 결과보다 더 높을 것이라 추정되며 여성의 흡연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자가 보고한 흡연율과

주요용어 : 여성, 흡연, 니코틴 의존도

교신저자 최영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송곡대학교 간호과 E-mail : kiwicys@naver.com

투고일: 2014년 5월 12일

심사완료일: 2014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5일

실제 소변 내 니코틴 성분으로 확인한 결과 남성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은 약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한국경제, 2011). 이와 같이 남성 흡연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여성 흡연율은 계속 증가되는 것에 대한 의문과 여성 흡연율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여성 흡연에 대해 계속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흡연은 여성에게 불임, 조산, 유방암, 조기 폐경 등을 일으킬 수 있다(김경선, 2001).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대부분의 흡연하는 여성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20-40대의 연령대로, 이들 여성 흡연자의 30-50% 정도가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흡연한다는 것이다(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CDC, 2001). 이와 같은 흡연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상황은 자녀들 즉, 청소년으로 하여금 흡연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부터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를 관대하게 하고, 이는 결국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흡연 중독이라는 현상이 초래되게 된다(Guo, Collins, Hill & Hawkins, 2000). 따라서 이제 여성의 흡연은 더 이상 한 개인문제가 아니라 가족 및 국가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김경선, 2001).

여성의 흡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흡연 행위에 대한 태도인 흡연태도와 흡연 신념이 있는데, 이는 흡연 행위와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흡연행위를 비교적 지속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행동의 소인요인(이선영, 2003), 이들 개념을 확인하는 것은 흡연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안소정, 2002).

김옥수와 김계하(2001)의 연구에서 여성은 흡연에 대해 마치 여성해방, 사회적 지위 향상의 상징인 것처럼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여 자연스럽게 흡연을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여성 흡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흡연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카페, 술집, 자신의 집 등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한꺼번에 많이 흡연하는 폭연 행동을 한다(서경현, 2007).

이와 같은 흡연 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흡연하는 이유는 흡연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편안해 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흡연자의 왜곡된 흡연신념(이선영, 2003)과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의 중독성 때문으로, 니코틴 의존도는 흡연에 대한 중독 정도를 나타내며, 금연 성공의 큰 장애 요인임과 동시에 흡연의 중요한 주제로(송태민, 이주열 및 안지영, 2010), 앞서 언급된 흡연에 대한 자가보고 보다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20세부터 69세에 이르기까지 성인 및 중·장년기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령대의 여성의 흡연행태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흡연태도, 흡연신념 그리고 니코틴 의존도의 정도와 차이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와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여성 흡연을 감소와 성공적 금연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흡연 여성들의 흡연태도, 흡연신념과 니코틴 의존도를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 흡연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 2) 여성 흡연자의 흡연 태도, 흡연 신념과 니코틴 의존도 정도를 파악한다.
- 3) 여성 흡연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성 흡연 태도, 흡연 신념과 니코틴 의존도 정도를 파악한다.
- 4) 여성 흡연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 흡연에 대한 신념과 니코틴 의존도와 관계 알아본다.
- 5) 여성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성 흡연자의 흡연 태도, 흡연 신념과 니코틴 의존도의 정도 및 관계를 알아보고,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A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소의 기관장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허락을 받았으며,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보건소에 방문한 20세 이상의 여성 흡연자에게 연구목적 설명 후 서면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

으며, 설문 도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알렸다. 편의 표집으로 모집한 연구 대상자는 총 154명으로 이들 중 자료가 미비한 19명을 제외한 총 131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1.3(Faul, Erdfelder, Lang, & Buchner)을 이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효과 크기, 0.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를 확인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21명으로, 본 연구 대상자 수 131명은 표본수를 충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연구도구

1) 흡연 태도

흡연 태도란, 흡연자가 흡연 행위에 대해 바라보는 태도로(McAlister, Krosnick, & Milburn, 1984), 본 연구에서는 이선영(2003)이 개발한 흡연태도 자가보고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측정되며, 6점에서 2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2이었다.

2) 흡연 신념

흡연 신념이란, 흡연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 믿는 것으로(Wang, Fitzhugh, Cowdery, & Trucks, 1995), Wang 등(1995)이 개발한 도구를 이선영(2003)이 수

정 보완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본 도구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측정되며, 7점에서 2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3) 니코틴 의존도

니코틴 의존이란, 강한 흡연 욕구가 일어난 상태를 의미하며, 긴장과 감정적 불편을 해소하거나 피하기 위해 흡연에 대한 갈망이 있고, 흡연을 중단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Fagerstrom, 1978).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를 알아보기 위해 Fagerstrom와 Schneider(1989)가 개발한 니코틴 의존도 도구인 FTQ(Frgerstrom Tolerance Questionnaire)를 이용하였다. FTQ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며, 아침에 첫 담배를 피우게 되기까지 시간, 하루에 피우는 담배의 양, 주로 피우는 담배의 니코틴 양,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당 응답항목이 2개이면 0-1점이, 응답항목이 3개이면 0에서 2점이 주어진다. 가능한 점수는 0-11점으로, 0-4점은 의존도가 낮음을, 5-6점은 중정도의 의존도를, 7점 이상은 의존도가 높아 금단증상이 있는 높은 의존도를 의미한다. 김옥수, 김애정, 김선화 및 백성희(200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62로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흡연행위, 흡연태도, 흡연신념, 니코틴 의존도 정도는 빈도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흡연행위에 따른 여성 흡연에 대한 태도, 흡연에 대한 신념 그리고 니코틴 의존도 정도는 각 특성에 따라 T-test 또는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고, 흡연 태도, 흡연 신념과 니코틴 의존도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니코틴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와 상관관계를 보인 음주 빈도, 스트레스와 흡연 행태(흡연 량, 흡연기간, 흡연 시작 연령)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는데, 이들 투입된 변수 중 음주 빈도와 스트레스는 명목척도이므로 더미 변수로 변경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니코틴 의존도 모형 검증 결과 Durbin-watson=1.801, F=12.48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5.7 ± 10.9세로 20세~39세가 60명(45.8%)으로 많았고, 학력은 고졸이 81명(61.8%), 결혼 상태는 결혼 유지

상태(동거)가 70명(53.4%), 직업유무에서는 취업상태가 59명(45.0%), 수입은 0-99만원이 49명(37.4%)로 많았다.

생활습관에서 음주빈도는 ‘가끔 마신다.’가

90명(68.7%), 음주량은 소주기준 한 병 이하가 96명(73.3%), 체중은 ‘흡연과 관련하여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8명(59.5%),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대상자가 93명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1)

구분	변수	범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 20	18(13.7)	35.7 ± 10.9
		20 - 39	60(45.8)	
		≥40	53(40.5)	
	교육정도	≤ 중학교 졸업	22(16.8)	
		고등학교 졸업	81(61.8)	
		≥ 전문대학 졸업	28(21.4)	
	결혼상태	미혼	42(32.1)	
		결혼유지	70(53.4)	
		이혼 등	19(14.5)	
	직업유무	있음(취업)	59(45.0)	
없음(미취업)		72(55.0)		
수입 (만원)	< 100	49(37.4)		
	≥100, < 200	46(35.1)		
	≥200, < 300	27(20.6)		
	≥ 300	9(6.9)		
생활습관	음주빈도	자주(3번 이상/주)	41(31.3)	
		가끔(1번 이하/주)	90(68.7)	
	음주량 (소주/병)	≤ 한 병	96(73.3)	
		≥ 두 병	35(26.7)	
	체중변화	변화 없음	78(59.5)	
		체중 저하	29(22.1)	
		체중 증가	24(18.3)	
	규칙적 운동여부	한다	38(29.0)	
		안한다	93(71.0)	
	스트레스	과도함	37(28.2)	
많음		52(39.7)		
적음		42(32.1)		
흡연행태	흡연량 (개피)	< 10	37(28.2)	13.7 ± 8.4
		≥ 10	94(71.8)	
	흡연기간 (년)	< 10	50(38.2)	12.2 ± 8.5
		≥ 10	81(61.8)	
흡연시작 연령	< 20	56(42.7)	22.1 ± 7.3	
	≥ 20	75(57.3)		

〈표 2〉 대상자의 흡연 태도, 흡연 신념과 니코틴 의존도

항목	분류	점수 범위 혹은 빈도(%)	평균± 표준편차
흡연 태도	6점 - 24점	7 - 24점	23.7 ± 3.2
흡연 신념	7점 - 28점	9 - 28점	18.6 ± 2.9
니코틴 의존도	낮음(≤4점)	77(58.8)	4.3 ± 2.2
	중정도(5-6점)	31(23.7)	
	높음(≥7점)	23(17.6)	

(71.0%)로 많았으며, 스트레스 정도는 ‘많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2명(39.7%)로 많았다.

흡연 행태에서 대상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3.7±8.4개로 대상자중 94명(71.8%)이 10개비 이상의 흡연량을 보였고, 흡연기간은 평균 12.2 ± 8.5년으로 10년 이상이 81명(61.8%)로 가장 많았으며, 흡연을 시작한 나이는 평균 22.1 ± 7.3세로 20세 이상에 시작한 대상자가 75명(57.3%)로 많았다(표 1).

2. 대상자의 흡연 태도, 흡연 신념과 니코틴 의존도

흡연 태도는 평균 23.7±3.2(최소 7점, 최대 24점)이었고, 흡연 신념은 평균 18.6±2.9(최소 9점, 최대 28점)이었다. 또한 니코틴의존도는 4.3±2.2로 낮은 정도의 의존도를 보인 대상자가 77명(58.8%)으로 많았다(표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태도, 흡연 신념과 니코틴 의존도

흡연 태도는 결혼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42$), 이는 결혼 유지 상태(동거)와 이혼 등의 상태간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결혼 유지 상태(동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신념에서는 결혼 상태($p=.008$), 직업 유무($p=.02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결혼 유지(동거)상태와 직업이 있는 경우가 높았다.

니코틴 의존도의 경우 음주 빈도($p=.013$), 스트레스($p=.033$), 흡연량($p=.030$), 흡연기간($p=.03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음주를 ‘자주 한다(4일 이상)’고 응답한 대상자가, 스트레스는 ‘많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흡연량은 하루 10개비 이상자가, 흡연기간 10년 이상인 대상자가 높았다(표 3).

4. 대상자의 흡연태도, 흡연신념과 니코틴 의존도간의 관계

흡연 태도는 흡연 신념($r =.292, p=.006$)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흡연신념과 니코틴 의존도간에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니코틴 의존도는 흡연량($r =.455, p=.001$), 흡연 시작 연령($r=.277, p=.011$)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흡연량은 흡연 시작 연령($r =.221, p=.019$)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흡연 기간, 흡연 시작 연령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4).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태도, 흡연 신념과 니코틴 의존도

분류	항목	흡연태도		흡연신념		니코틴의존도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령	< 20	23.4±2.0		18.3±2.0		1.3±.5	
		20 - 39	23.3±3.2	1.16 (.897)	18.1±2.8	1.11 (.357)	1.7±.8	1.26 (.122)
		≥40	23.7±3.6		18.2±4.1		1.6±.8	
	교육 수준	≤ 중졸	23.1±2.9		18.8±2.2		1.7±.8	
		고졸	23.9±3.4	5.93 (.563)	18.4±.1	1.02 (.401)	1.6±.8	.32 (.587)
		≥ 전문대졸	23.5±2.4		18.6±.3		1.5±.8	
	결혼 상태	미혼 ^(a)	23.98±3.0	32.97	18.1 ± 3.2	32.97	1.6±.8	
		결혼유지 ^(b)	24.1±2.9	(.042	18.0 ± 2.9	(.008	1.5±.7	1.59
		이혼 등 ^(c)	22.0±4.3	b>C)	19.5 ± 2.1	b>C)	1.9±.9	(.069)
	직업 유무	있음(취업)	23.1±3.2	-1.03	19.3±3.0	2.27	4.4±2.4	.51
없음(미취업)		23.9±3.3	(.307)	18.1±2.8	(.025)	4.2±1.9	(.610)	
수입 (만원)	< 100	24.2±3.3		18.7 ± 2.7		1.4±.7		
	≥100, < 200	23.3±3.4	9.19	19.1 ± 3.3	1.145	1.6±.8	.91	
	≥200, < 300	23.7±2.9	(.455)	18.3 ± 3.9	(.333)	1.8±.8	(.208)	
	≥ 300	22.8±3.0		18.2 ± 3.4		1.6±.9		
생활 습관	음주 빈도	자주	22.9±3.3	-1.95	18.4±2.9	-.47	4.9±2.2	2.52
		가끔	24.1±3.0	(.054)	18.7±2.9	(.641)	3.9±2.1	(.013)
	음주 량 (소주/병)	≤ 한 병	23.7±3.2	.17	18.7±3.1	.24	4.3±2.1	.54
		≥ 두 병	23.6±3.5	(.863)	18.5±2.5	(.809)	4.1±2.3	(.594)
	체중 변화	변화 없음	23.4±3.4		18.2±3.0		1.6±.8	
		체중 저하	24.1±3.3	10.43	18.3±2.9	4.98	1.6±.8	.27
		체중 증가	24.3±2.7	(.372)	17.9±2.9	(.372)	1.5±.7	(.646)
	규칙적 운동여부	한다	23.7±3.2	.06	18.2±2.6	-1.14	4.1±2.3	-.69
안한다		23.7±3.3	(.952)	18.8±3.1	(.256)	4.4±2.1	(.494)	
스트레스	과도함 ^(a)	24.1±4.1		19.2±3.5		1.7±.8	2.02	
	많음 ^(b)	23.7±2.8	5.55	18.6±2.9	5.55	1.7±.8	(.033	
	적음 ^(c)	23.4±2.9	(.592)	18.1±2.8	(.592)	1.3±.6	a>c)	
흡연행태	흡연 량	<10	23.2±2.9	-1.097	18.5±2.3	-.36	3.5±1.6	-2.70
		≥10	23.9±3.3	(.275)	18.7±3.2	(.701)	4.6±2.3	(.008)
	흡연기간 (년)	<10	23.5±2.4	-.53	18.3±2.9	-.91	3.8±1.9	-2.20
		≥10	23.8±3.7	(.600)	18.8±2.9	(.366)	4.6±2.2	(.030)
	흡연시작 연령	<20	23.8±3.1	.12	18.6±2.7	-.16	4.6±1.9	1.32
≥20	23.7±3.3	(.903)	18.7±3.2	(.876)	4.1±2.310	(.188)		

5.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니코틴 의존도를 설명하는 변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흡연행태(흡연 량, 흡연기

간, 흡연 시작 연령)로 전체 설명력은 31.0%이며, 이중 흡연 량의 설명력은 20.1%(β =.450)로 다른 관련요인보다 가장 영향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일 지역 여성 흡연자의 흡연태도, 흡연 신념과 니코틴 의존도

〈표 4〉 대상자의 흡연태도, 흡연신념과 니코틴 의존도간의 관계

구분	흡연태도	흡연신념	니코틴의존도	흡연량	흡연기간 (년)	흡연 시작연령
흡연태도	1.00					
흡연신념	.292 (.006)	1.00				
니코틴의존도	.003	.052	1.00			
흡연량	.028	.081	.455 (.001)	1.00		
흡연기간 (년)	.035	.147	.277 (.011)	.000	1.00	
흡연시작연령	-.114	-.111	-.250	.221 (.019)	.000	1.00

〈표 5〉 니코틴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S.E	β	t	p	Adj R ²	F(p)
니코틴 의존도	음주빈도	-.327	.356	-.070	-.917	.361	.040	6.357 (.013)
	스트레스	-.141	3.225	-.050	-.625	.533	.066	10.212 (.002)
	흡연량	.118	.020	.450	5.953	.000	.201	33.100 (.000)
	흡연기간(년)	.045	.019	.181	2.352	.020	.069	10.692 (.001)
	흡연시작연령	-.090	.022	-.308	-4.093	.000	.055	8.568 (.004)

R = .580, R² = .337, Adj R² = .310, F = 12.484, p = .000, Durbin-watson = 1.801

논 의

본 연구는 일 지역 여성의 여성 흡연에 대한 태도, 신념 및 니코틴 의존도의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20-39세가 많았는데, 이는 다른 연령층 보다 20-30대가 많았다는 이숙희(2002)의 연구와 같다. 2001

년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여성 흡연을 추이를 살펴보면(통계청, 2014), 2001년도 19-29세가 4.4%, 30-39세가 3.6%의 비율을 보이던 것이 2012년도에는 각각 13.6%와 9.0%로 20대와 30대가 모두 약 3배 상승하였고, 20대/30대 비가 2001년도 0.8에서 2012년 4.6으로 상승 하여 20대의 흡연이 예의 주시할 만큼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변화에 대한 추이는 금연에 대한 교육과 지

지가 10년 후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10대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특히 20-30대의 흡연 대상자에게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흡연 시작 연령은 평균 22.1 ± 7.3 세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흡연시작 연령 21.2세 보다 조금 많았으나(통계청, 2008), 본 연구에서 흡연 시작 연령 중 가장 빠른 나이는 16세로 흡연을 처음 시작한 연령에 따라 비흡연자보다 3~19배의 높은 사망률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석소현 2007)와 통계청의 흡연에 대한 10년간의 추이에서 흡연 시작연령 19-29세의 빈도가 약 4배 증가하는 결과(통계청, 2014)를 볼 때 앞서 언급했듯이 보다 빠른 시기에 금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대상자의 생활습관 중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자(71.0%), 스트레스 정도가 '많음' 이상인 대상자(67.9%)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니코틴 의존도 점수도 유의하게 높은 것($p=.033$)은 여러 선행연구와 같다(서경현과 이석민, 2004; 김영숙과 조현숙, 2008; 추지은, 2013). 이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스트레스량이 많은 경향(장성욱, 2004)이 있으며, 강한 스트레스 상황 시 더 흡연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 흡연을 습득하게 되면 별다른 노력 없이 흡연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서경현과 이석민, 2004)과 같이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한 모색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리 방법 중 운동은 흡연자의 스트레스 및 폐 환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이혜순, 2007), 흡연이 계속될수록 대사 증후군의 빈도가 높고, 산소량이 많더라도 산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배준형(2011)의 연구결과에 따라 여성 흡연자들에게 대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중재방법의 하나로 운동을 포함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결혼유지상태(동거)에서 오히려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p=.042$), 흡연에 대한 왜곡된 신념($p=.042$) 점수가 모두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가정이 자연스러운 흡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주장(Guo 등, 2000; 곽연희, 2011)과 여성 흡연자 중 가족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가 74.4%를 차지한 김옥수 등(2001)의 연구를 볼 때 결혼, 임신 육아기에 있는 여성 흡연자에 대한 세심한 접근과 이를 위한 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앞서 지적한 대로 자녀가 왜곡된 흡연에 대한 관대한 태도(Guo, 2000)를 가지지 않도록 흡연자 중심의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양육의 시기에 있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금연프로그램에 포함하는(곽연희, 2011) 가족중심의 금연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흡연 태도는 흡연 신념($p=.006$)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조기정(2002)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태도가 달라진 후 흡연 행위가 감소하였고, 흡연 신념과 흡연 행동은 양의 상관관계로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함진선, 2005)라고 한 것 같이 흡연 태도와 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중재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

하여 흡연태도와 흡연 행위에 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니코틴 의존도는 평균 4.3 ± 2.2 점으로 금단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7 점 보다 낮았으나, 김옥수 등(2001)의 연구보다는 높았다. 이는 김옥수 등(2001)의 연구는 20-30대의 젊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흡연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흡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니코틴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는 김영숙과 조현숙(2008)의 결과와 같다. 본 연구에서 흡연 기간이 길고, 흡연시작연령이 낮을수록 흡연 량과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던 것처럼, 흡연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다 빠른 시기에 금연 프로그램에 접근되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흡연 태도와 흡연 신념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나, 흡연태도와 흡연 신념이 흡연행태와 니코틴 의존도와 유의한 관련성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흡연 량은 니코틴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설명력 20.1%, $\beta=.450$)로 이는 흡연태도가 흡연 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성은 확인하였으나, 니코틴의존도와와의 관계는 서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안소정(2002)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흡연 태도나 흡연 신념이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관련성 정도는 확인할 수 없어, 이들 간에 인과적 결과 확인을 위한 지속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흡연 태도와 흡연 신념은 흡연행위를 지속적으로 예측하는 주요 요

인이며(이선영, 2003; 함진선, 2005), 흡연태도를 교정하면 금연시도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김명숙, 2005)는 흡연태도와 흡연신념이 흡연 행태(기간, 량)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요인이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금연 상담 및 교육 시 흡연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대한 교정은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여성 흡연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 신념 및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A시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내원한 여성 흡연자 13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5.7 ± 10.9 세로 20세~39세가 45.8%로 많았고, 대상자의 하루 평균 흡연 량은 13.7 ± 8.4 개, 흡연기간은 평균 12.2 ± 8.5 년, 흡연을 시작한 나이는 평균 22.1 ± 7.3 세이었다. 대상자들의 흡연 태도 평균 점수는 23.7 ± 3.2 , 흡연 신념은 18.6 ± 2.9 점, 니코틴의존도는 4.3 ± 2.2 점 이었으며, 대상자의 흡연 태도는 결혼 상태($p=.042$)에서, 흡연 신념은 결혼 상태($p=.008$), 직업 유무($p=.02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니코틴 의존도는 음주 빈도($p=.013$), 스트레스($p=.033$), 흡연 량($p=.030$), 흡연기간($p=.03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흡연 태도는 흡연 신념과 니코틴 의존도는 흡연 량, 흡연 시작 연령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흡연행태가 주요 요인으로 전체 설명력은 31.0%이며, 이중 흡연량($\beta=.450$)은 다른 관련요인보다 가장 영향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여성의 흡연을 감소와 금연 상담을 위한 여성 흡연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가 일개 지역 보건소에 내원한 자로 한정되어 연구하였으므로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흡연 행태 및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 영향요인 확인을 위해, 흡연 태도, 흡연신념과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2-40대의 연령층의 자녀 양육기의 여성 흡연자에 대한 세심한 접근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흡연 여성 개인의 금연 및 가족 전반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김경선 (2001). 여대생의 흡연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5(1), 1-12.

김명숙 (2005). 직장 흡연남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흡연지식, 흡연태도, 금연의도 간의 관계 연구. *대한 간호학회지*, 35(2), 344-352.

김영숙, 조현숙 (2008). 여성흡연자의 흡연 행태 및 관련요인-인천광역시 보건소 금

연 클리닉 상담자를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5(3), 125-138.

김옥수, 김계하 (2001). 여대생과 직장 여성들의 사회적 지지. 우울, 음주, 흡연에 대한 비교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3(3), 363-372.

김옥수, 김애정, 김선화, 백성희 (2001). 미혼 흡연 여성들의 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흡연량,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13(4), 509-516.

곽연희 (2011).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과 또래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부산.

배준형 (2011). *흡연이 20대 남자대학생의 아디포넥틴 농도, 유산소 능력 및 대사 증후군 지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서울.

서경현 (2007). 한국여성의 흡연과 금연에 관한 최신 지견. *한국심리학회지*, 12(4), 695-713.

서경현, 이석민 (2004). 금연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장·단기 금연 성공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 탐색.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1(1), 137-151.

석소현(2007) 성인 남성의 흡연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6(2),

- 113-119.
- 송태민, 이주열, 안지영 (2010). 금연실천과 니코틴 의존도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보건 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7(4), 123-129.
- 안소정 (2002). *성인 남성의 흡연 태도와 행동 및 금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숙희 (2002).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흡연 실태*. 석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산.
- 이선영 (2003). *가임기 미혼여성의 흡연 행위 예측 모형*.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혜순 (2007). *복합운동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흡연 여부에 따른 스트레스, 폐 환기 기능 및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장성욱 (2004). 흡연유혹 개념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4(1), 160-171.
- 조기정 (2002). 고등학생의 금연교육 프로그램운영이 흡연태도에 미치는 영향: 수원 지역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학교 체육학회지*, 12(2), 147-156.
- 추지은 (2013).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의 우울기분과 생활 습관 및 건강 특성과의 관계-흡연, 음주, 비만, 영양, 생활습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통계청 (2008). 흡연 실태에 관한 연구. <http://www.kosis.kr/search/totalSearch2.jsp>, Retrieved April 18, 2014,
- 통계청 (2014). 흡연을 추이, Retrieved April 18, 2014,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D#SubCont 2014. 4. 18
- 함진선 (2005). *스트레스, 중요타인의 흡연 및 흡연에 대한 신념이 청소년 흡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 한국경제 (2011). *한국 여성 흡연을 '충격' ... 실제 흡연율은 13.9%로 공식보다 2.4배 입력 높아*. (2014, April 1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1161642g> . 2014.4.18.
-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2001). *Behavior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Available at: www.CDC.gov. Accessed. Retrieved April 18, 2014.
- Guo, J. Collins, L. M. Hill, K. G., &

- Hawkins, J. D. (2000). Developmental pathways to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1(6), 799-808.
- Fagerstrom, K. O. (1978). Measuring degree of physical dependence tobacco smoking with reference to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Addiction Behaviors*, 3, 235-241.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 Buchner, A. (2007). G-power3 :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79.
- Fagerstrom, K. O, Schneider N. G. (1989). Measuring nicotine dependence: A review the Fagerstrom Tolerance questionnaire. *Journal of Behavior Medicine*, 12(2), 159-182.
- McAlister, A., Krosnick, J., & Milburn, M. (1984). Cause of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Test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1), 24-36.
- Wang, M. Q. Fitzhugh, E. C., Cowdery, J. E. & Trucks, J. (1995). Developmental Influences If Attitudes and Belief on Adolescents's Smoking. *Psychology Reports*, 76, 399-402.